

이었다. 서양바람—洋風이 日帝를 벗어난 제 2세대—자유세대를 세차게 휘몰아쳤다. 반드시 美軍의 진주와 6.25의 서양우방 진출타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洋風은 한국에만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西歐의 近代化란 이상을 단시일에 구현하려는 현실적 의지가 동양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近代化와 西歐化를 구별짓지 못하고 洋風에 눈이 멀게 했던 것이다. 조상의 전통적 옷을 벗어 던지고 서양의 모던·스타일, 패션·모드를 좇아 입었다. 그리고 현대인임을 자랑했다. 6·25 직후의 춤바람, ‘자유부인’ 따위가 걸쭉질만의 洋風에 놀아나는 한국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교차로」란 활동사진 속에서 조미령은 뽀족구두를 신고 몸에 꼭 맞는 양장으로 가파른 계단을 위태위태하게 올라간다. 배부른 사장이 양복을 입고 팔자걸음으로 쫓아간다. 목이 졸리고 배가 조여서 불편한 것, 서양옷은 본래부터 우리한테 걸맞지 않는 것임이 드러난다. 두루마기를 찾아입자. 곰방대를 찾아 물자. 치마저고리로 갈아입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아니한 제 3세대는 제 2세대의 끝불건 양풍에 식상한 모양이다. 우리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國風이다. 사주팔자 관상까지·산신령·무당굿까지 洋式 대학가에 불러들이는 國風의 열기는 저 洋風 못지 않게 한국인을 들뜨게 하는가 보다. 日帝가 물러간 문화의 빈 광장에 洋風과 國風의 이중기류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한국문화의 현주소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

1.3. 日帝를 미워하면서도 그 文化에 대응할 주체적 자각을 지니지 못한 恨맺힌 제 1세대는 술만 자시면 그래도 나오는 것은 요상한 일본노래요, 文字를 쓴다고하면 딱딱한 日本語다. 해방과 자유의 제 2세대는 팝송에 꼬불랑말을 文化人的 꼬리표로 생각하는 洋風에 젖어있고, 6·25의 고통을 모르는 제 3의 한글세대는 어른들의 짓눌리고 뒤틀린 모습을 뛰어넘어 저들의 뿌리를 찾는 열기에, 끝방의 것은 무조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잘못생각하는 國風의 열기에 들떠있다. 이제 한국문화를 지탱하고 이어 나가는 세가지 대표적 유형을 세대에 견주어 인상적으로 점묘해 보았으나 과연 한국고전이 서점가를 어느 만큼 언제부터 자리하게 되었는지 위의 國風과 관련하여 살펴 볼 차례다.

흔히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정당성을 조상의 문화적 위인·영웅들에 기대어 세워 보려는 바람에서 광화문 거리에 줄줄이 석고상들을 날림으로 만들어 나열한 것을 國風의 첫 효시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해방의 와중에서 또 6.25의 폐허를 헤치고 민족문화의 주체적 연구·선양을 외치고 나선 것은 민간주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연구·출판사업이 그 처음이다. 제 3 한글세대의 이상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란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그 취지문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 겨레가 작은 중화[小中華]가 아니면 가왜놈[假倭奴]이 다 되고 말았을 것이니, 아무리 연합군의 승리가 있었다라든 조국의 광복은 없었을 것이요, 설령 조국의 광복이 있었다라든 우리가 무엇으로써 민주주의 자유사상의 기반 위에다가 독립국가를 운영하여 갈 수가 있었을 것인가?

한 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독립이 있었음도 확실히 한글의 은덕이며, 배달겨레의 오늘의 자유가 있음도 또한 세종대왕의 은덕 아님이 없다. 한글은 다만 배달 겨레에게 과거 및 현재의 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나니, 여기에 세종대왕의 위대한 성덕은 고급과 미래를 통하여 한 없이 크다할 것이다.”³⁾

이 사업회는 <세종실록> 36책 국역간행을 비롯하여 <성종실록> 8책 등 도합 69책의 실록을 국역발간하고, 문고본 교양국사총서 37책을 발행하여 한국고전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어느 누구나 손쉽게 얻어 읽을 수 있게 하였다.

한글세대의 세종대왕을 연결하는 국어학자 및 교육자를 주축으로 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25년을 넘겨 성년으로 접어들면서 80년대 후반의 한국인들은 한국고전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한국고전이 담은 한국사상의 연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58년 7월 10일 한국사상연구 편집원일등은 이렇게 호소한다.

“남을 알기에 바빴던 우리는 이제 역사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이즈러진 얼굴을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외래사상으로 부더의 해방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사상적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 위에 외래사조를 수입·소화해야겠다는 자각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활은 있었으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의 이념이 없어 우리의 낮은 자기를 잃고 방황한지 이미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자신을 돌보아야겠다는 자각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의 고전이 있고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이나 남의 위인을 보고 살던 <생각의 구결>에 지친 우리는 우리의 위인, 우리의 古典이 갖고 싶어진 것입니다. 우리민족도 위대한 꿈을 엮어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⁴⁾

한국고전의 핵심인 한국사상연구는 1963년 2월 15일로 정식 「한국사상연구회」로 발족하여 씨클운동의 범위를 넘어 범국민적 국학사상의 보급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不定期的으로 16년동안 겨우 열집을 낸 <한국사상>은 문제의 제기와 분위기 조성에만 보탬이 됐다는 10년간의 회고이다.⁵⁾ 근대화란 기치밑에 경제발전에만 치중하던 60·70년대에 한국고전에 관련된 출판현황을 알아보자.

1962년에 나온 대중적 교양물 <현대인 강좌> 전 7권에는 별권으로 <한국의 발견>을 집어 넣는다.⁶⁾ 새삼스레 한국을 발견한다는 생각부터가 도무지 이상하기 짝이 없다. 바로 위에 인용한 한국사상연구회 동인들의 호소가 점차 일반 교양국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감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제 1세대의 미숙한 정신력으로 야기된 혼란과 진통 속에서 잊혀졌던 한국의 주체적 문화를 찾아 닦아 다시 제 것으로 만들려는 창조적 문화활동의 국민적 기반이 차츰 닦여지려는 시기가 60년대초였다고 믿어진다.

한국사학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日帝시에 문화운동의 주역을 담당하던 진단학회가 1959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5년사 (1981. 서울) p. 44.

4) 韓國思想 講座 1.2. 1958 (고구려문화사, 서울) pp. 5-6.

5) 韓國思想 제11집, 1974 (한국사상 연구회) p. 213.

6) 韓國의 發見, 現代人講座. 제 7 별권, 1962 (博友社, 서울)

년부터 1965년에 걸쳐 <한국사> 7책을 냈고, 1964년에서 1972년에 걸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한국문화사대계> 7책, 또 국사편찬위원회도 1973년에서 78년에 걸쳐 <한국사> 24책을 내었다.

한국고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다음 절에서 한국고전의 형성에 기여한 실학운동과 가까이는 日帝下의 문화운동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론하겠다. 20세기 한국인의 가장 보편적 사상형태를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활동이던 민족주의의 직접적 간접적 표현이요, 그 선구자, 추진자, 활동가들은 약간의 문필가를 제외한 사학자들과라고 말해야 하겠다.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고전의 출판현황을 계속 살펴보기로 한다.

1965년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는 83년까지 도합 28종 164책의 고전국역총서를 간행한다. 1970년 당시 정부측 문화공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故박종홍교수는 민족문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경제계획도 近代化도 그 모두가 민족부흥을 위하여 부과된 일이다. 그러나 얼빠진 맹목적 추종이 부흥도 아니려니와 문화적인 가치의식을 결여한다면 경제의 성장도 올바른 근대화도 달성키 힘들 것이다. 민족문화가 양양·추진될 때 스스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요, 권하지 않아도 동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몸치기를 자원할 것이다. 東亞에 있어서 나아가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主體性을 확보·발휘하는 길은 민족문화의 추진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⁷⁾

우리고전읽기 프로그램을 독려하는 1983년 <민족문화문고간행회>의 선전문은 ‘우리 문화를 되살려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려운 한문문화를 한글문화로 바꾸고, 전통문화를 현대문화로 연결시키며, 양반문화를 국민문화로 넓혀야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한글—현대—국민과 한문—전통—양반의 대비가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국고전(한문으로 쓰여진)의 국역사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 민족문화의 추진이 고전국역에 그쳐서는 안되지만 60년대의 민족적 주체의식의 자각이 정치적으로는 4.19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맞음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숨길 수 없다.

대학가에도 차츰 한국고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안내책자가 나온다.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가 1968년에 내어놓은 <대학생을 위한 교양도서> 108권 가운데 약 20% 정도는 반드시 고전은 아니더라도 한국관계서적을 손꼽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문학·예술·자연과학의 4분야에 포함된 한국관계교양도서를 일별해보자.

<인문사회과학> 한국사신론, 한국과학기술사, 한국의 인간상, 한국인의 성격, 三國史記, 三國遺事, 退溪全書, 栗谷全書, 熱河日記, 西遊見聞, 우리말 八萬大藏經

7) ‘民族文化의 意義’ 朴鍾鴻全集 제 6권 pp.77-78. <한국사상의 방향> 안에 들어있는 哲學的 小論이나 최초로 수록된 곳은 고전국역총서, 서울, 1970이다.

| 한국의 古典 百選 (동아일보) | 한국고전 국역총서 (민족문화 추진회) | 사 상 집 (同和) | 名 著 집 (大洋) | 박영 문고 | 한 국 사 상 문 고 (三省) | 三 中 堂 文 閣 | 서문 문고 | 을유 문고 | 탕구 당 | 현암 신서 | 세종 문고 | 정음 문고 |
|---|-------------------------------|---------------|---------------|----------|---------------------------|--------------|----------|--|---------|----------|----------|----------|
| 정약용, 경제유표 목민심서 | ∇ | | ∇ | | 경세 유표 ∇ | | | ∇ | | ∇ | | 목민 ∇ |
| 李 緯, 四禮便覽 成宗命編, 國朝五禮儀 中宗命撰, 동국여지승람 鄭尙驥, 동국지도 이중환, 택리지 김정호, 청구도, 大東地 志, 대동여지도 | ∇ | | ∇ | | | ∇ | | | | | | |
| 一언어 世宗御製, 훈민정음 世宗命撰, 동국정운 申景濬, 訓民正音韻解 老乞大 柳僖, 諺文志 | | | | | | | | | | | | |
| 一兵學 김종서, 制勝方略 正祖命撰, 武藝圖譜通志 | | | | | | | | | | | | |
| 一자연편 世宗命撰, 鄉藥集成方 世宗命撰, 醫方類聚 許浚, 동의보감 李濟馬, 東醫壽世俟元 申沍, 農家集成 洪萬選, 산림경제 丁若銓, 效山魚譜 成周眞, 書雲觀志 徐有渠, 林園十六志 | | | | | | | | | | | | |
| 一문학·예술편 崔致遠, 桂苑筆耕 李齊賢, 益齋集 金宗直, 佔畢齋集 朴祥, 訥齋集 李廷龜, 月沙集 張 維, 谿谷集 李 植, 澤堂集 金昌協, 農巖集 | | | ∇ | | | | | 경학 대장 ∇ 능 매 웅 설 ∇ -만필 ∇ | | | | |

1. 牧民心書, 2. 三國遺事, 3. 三國史記, 4. 栗谷全書, 5. 亂中日記, 6. 熱河日記,
7. 松江歌辭, 8. 高麗史, 9. 金剛三昧經論, 10. 金鰲新話, 11. 東文選, 12. 礪溪隨錄,
13. 童蒙先習, 14. 懲老錄, 15. 往五天竺國傳, 16. 東國輿地勝覽, 17. 孤山遺稿,
18. 春香傳, 19. 秋史文集, 20. 星湖僿說, 21. 芝峯類說, 22. 訓民正音, 23. 禪家龜鑑,
24. 洪吉童傳, 25. 青丘永言, 26. 東醫寶鑑, 27. 桂苑筆耕, 28. 龍飛御天歌, 29. 退溪全書,
30. 戒女書, 31. 閑中錄, 32. 擇里誌, 33. 燃藜室記述.

더우기 오늘의 책 선정협의회에서 83년 5월까지 8개월동안 출간된 신간도서 가운데 학문적 연구성과, 현대인의 의식 및 교양에 도움이 된다는 두 가지 기준으로 뽑은 39권의 오늘의 책에는 22권이 한국에 관련된 책들이다.

1. 조선 前期 사회경제연구 (한영우)
2. 고려 귀족사회와 노비 (홍승기)
3.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 연구 (경두희)
4. 한국 문화전통론 (김철준)
5. 한국 문양사 (임영주)
6. 한국의 초상화 (조선미)
7. 한국 근대서양문화移入史 연구 (김병철)
8. 한국 神學의 鑛脈 (류동식)
9. 한글 궁체 연구 (박병천)
10. 한국 정치발전론 (한정일)
11. 國土와 民衆 (박태순)
12. 한국의 발견(1-11卷 여행안내서)¹¹⁾

1984년 금년들어 월간<신동아>는 역사를 움직인 백권의 철학책 속에 서양·동양편에 이어 13권의 한국철학고전을 집어넣었다.¹²⁾ 한국고전이 이미 한국에서만의 고전이기에에는 아

11) 조선일보, 1983. 9. 8일자 문화면.

12) 新東亞, 1984년 1월로 별책부록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철학책에는 다음과 같은 13권의 한국철학자의 저술이 소개되어 있다.

1. 元曉의 「大乘起信論疏別記」
2. 圓測의 「般若心經贊」
3. 諦觀의 「天台四教儀」
4. 知納의 「勸修定慧結衣文」(1190)
5. 徐敬德의 「花潭集」(1489)
6. 李滉의 「聖學十圖」(1568)
7. 李珥의 「聖學輯要」(1575)
8. 休靜의 「禪家龜鑑」(1590)
9. 朴世堂의 「思辨錄」
10. 韓元震의 「朱子言論同異攷」(1725)

값다. 아니 번세계적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는 자각이 싹텃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의 민족적 주체의식의 자각을 본지 20년만에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역량은 한국·한국인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보다 보편적 인간문화일반으로 비상할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주장에 과장이 있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한국의 걸모습을 보기를 권한다. 이처럼 억세게 자라나는 한민족의 활동은 한국이라는 또는 민족이라는 협량을 넓히고 걸가죽을 뚫고 깊이 들어가는 집요함으로 세계의 문화인 대열에 들어서려는 안간힘이다. 정치·군사적 독립의 확립과 경제·사회적 안정 위에 문화·학예적 창조를 거의 한세대안에 이룩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이 지금 한민족 전체가 취하는 엄청난 모습이다. 어느 한 분야도 거미줄이나 핏줄처럼 엉킨 사회구조 속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고전의 현재 모습을 통찰할 때 지난 30여년간의 궤적을 그려보임으로써 그 진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일단 60년대 이후 한민족의 자각 위에 이루어진 한국고전형성에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본 다음 그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 들어가자.

첫째, 문화적으로는 한글세대의 國風이라는 일기에 힘입어 한국고전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그 國風을 음으로 양으로 주도한 학자들, 즉 이 문화운동의 주역인 창조적 소수는 대부분 사학을 전공했거나 역사에 관심있는 문인·학자들이다. 예컨대 한국의 고전 백권을 뽑은 한국학자들 가운데 36명이 한국사전공이요, 25명이 국어국문학, 18명이 철학전공이라는 분포를 유념해 보라.

셋째, 위의 사학자들의 사상적 테두리는 민족주의라는 마력을 지닌 이념이다.

넷째, 한국고전은 대부분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소위 고전국역사업이 한국출판계 및 문화계 일반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가지 특징들은 해방이후 한국고전의 현황을 표피적으로 살펴 본 데서 얻어낸 지극히 피상적 관찰의 일부분임에 불과하지만, 이제 보다 깊이 한국고전의 뿌리를 그 형성과정의 묘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단이 앞으로 사회학적 조사 내지 문헌섭렵에 의한 서지학적 조사로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역사적 탐구로 초점을 돌려야 하겠다.

<계속>

11. 丁若鏞의 「論語古今註」(1813)

12. 崔漢綺의 「人政」(1860)

13. 龍…의 「黨海日輪」(1930)

Abstract**A Guide to Classics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I. Introduction****Tae-Kil Kim**

Most widely read books in Korea today are either those for leisure and scintillating interest or those practical manuals for entrance and official examinations, while those classical works emphasizing character formation and liberal education are neglected. In view of the above fact, we are of the opinion that more classics written by great authors in both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should be read for the promotion of liberal education.

We believe translation into readable modern Korean and publication of selected classics recommendable for Korean youths,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must precede to any hasty "spoon-feeding" indoctrination of liberal ideas. As a first step we have attempted to provide a reliable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classics suitable to college students in modern Korea.

We have agreed upon one of the most basic criteria for the selection: most precious books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re those that would give them "power of wisdom" living in this modern world. Accordingly, we have selected some books among the Korean, Chinese, Indian and Western classics which are obligatory and prerequisite readings for any Korean student today.

II. Formation of the Korean Classics.**Jaе-Ryoung Shim**

Korean classics sound strange, for they contain unconditional truths represented by classics and local limitation conditioned by Korea.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reality that modern Koreans are not hesitant to use the term "Korean classics."

Hence, I have traced some historic origins of the formation of the idea "Korean classics." Although the use of the term is quite a recent phenomenon, coupled with the rise of the modern nationalism, I have been able to locate a well established tradition of

Korean classics firmly rooted into the fertile ground of *Sirhak* Neo-Confucian movement during the late Yi Chosŏn dynasty. Then the academic enthusiasm of *Sirhak* scholars was inherited by the so-called *Kaehwap'a* or Korean Enlightenment scholars such as Ch'oe Nam-sŏn, Yi Nŭng-hwa, and Chŏng In-bo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ponse to the impact of the Japanese colonial expansion. We can safely conclude that the new meaning of "*Sirhak*"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lassic tradition are simultaneously achieved during the 1930's. The vigorous publication and promotion of Korean Classical works by various publishers and government agencies during the 1960's and onward are continuation of the previous attempt to identify Korean cultural achievements in the face of the oncoming age of pluralistic universalism.

A note of warning is added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to select Korean classic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Korean youths today so that they may become truly educated social beings: Another addendum is a list of Buddhist classics in India, China and Korea.

III. Chinese Classics

Hak-chu Kim

This is a preliminary attempt to probe the problem of what among the Chinese books can be ranked as "Classics" for basic readings suitable to Korean students today.

I have surveyed those Chinese books readily available in Korea translated into Korean and published on Korean in order to ascertain what books are favorably received by Koreans. Then I have carefully considered "Hundred Selections among Chinese Classics" published by *Shin-dong-a* monthly magazine as a special separate volume added to January, 1980 edition and some other basic texts of Sinology selected by Chinese scholars.

On the basis of the survey and consideration, I have selected important Chinese classic most appropriate for us and classified them into literature, thought and social ideas. I have consistently kept the principle of selection, i.e.,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ulture and education. Furthermore I have emphasized more on the futuristic significance on Korean culture and educating Korean youths than on their past influence on us.

Finally, I have dealt with the problem of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those works selected. General problematics are considered first and specific idiosyncracies of each particular book are probed in turn.

IV. Classics of the West

Hee-Jin Park

The idea that liber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that everybody ought to have, and that the best way to a liberal education is through the greatest works men have produced, is still the best educational idea. These books shed some light on all our basic problems, and that is folly to do without any light we can get.

But with economic growth, liberal education has tended to be neglected all over the world. In Korea, because of the tremendous premium she has been placing on the need for rapid economic growth, it is more neglected than in any other country. We might even say that liberal education has virtually disappeared in our country. We regard this disappearance as an aberration, and not as an indication of progress. We do not look upon this disappearance as a benefit to be thankful for, but as an error that should be corrected.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to recapture and re-emphasize and bring to bear upon its present problems the wisdom that lies in the works of the greatest thinkers. They may help us to learn to live better.

I tried to choose the most important voices in the classics of the West for Korean students, which would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them.